

“동아시아의 눈으로 동아시아를 가늠하라”

21세기 국제정치의 중대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 동아시아.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세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이론으로는 부족하다.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에 기반한
동아시아적 국제정치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_ 역사에서 이론으로

저 자 _ 전재성

출판사 _ 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_ 2011년 12월 7일

판 형 _ 신국판

쪽 수 _ 236 쪽

가 격 _ 15,000원

ISBN 978-89-92395-19-9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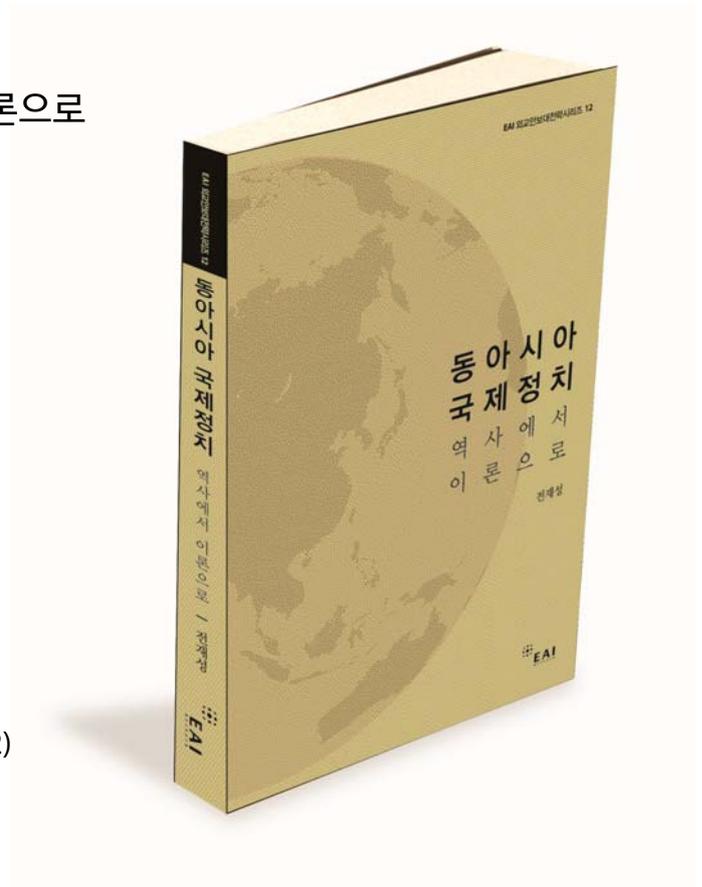
문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8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21세기 세계질서의 재편, 동아시아를 보아야 한다”

2010년대 국제정치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20여년 간 유지되었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패권의 등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시대의 패권 미국과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이 격돌하는 지점, 동아시아는 21세기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한국은 냉전 이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웃 나라 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의 주요한 고려대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전략은 국제질서, 특히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에 기반해야 한다. 저자인 전재성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는 이행기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동아시아에 맞는 국제정치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이론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가진 복잡성 때문이다.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근대에 진입한 서구의 경험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외부의 힘과 논리에 의해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근대와 근대 이행, 그리고 근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근대 이행기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경험이 아직도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려는 남북의 노력 역시 1945년 이전 과거의 한반도를 미래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라는 큰 흐름이 만들어낸 21세기 국제정치의 복합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주권국가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고,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상태’를 강조하는 20세기 서구 주류 국제정치이론으로는 21세기 국제정치의 복합적 성격을 설명하지 못한다. 21세기의 국제정치에는 주권 국가 외에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무정부적 상태의 조직원리와 네트워크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조직원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기존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저자는 기존 서구 국제정치학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시간적 안목과 서구를 넘어선 장소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1세기 복합조직원리론을 제시한다.

“역사에서 이론으로”

저자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론화를 위하여 먼저 역사사회학적 시각에서 서구 근대 국제정치학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역사사회학적 시각에 따르면 서구의 국제정치적 근대는 소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우 긴 중세의 그림자 속에서 중세, 탈중세 이행기,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근대와 탈근대 이행기의 특징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행기로서 복합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면, 동아시아는 서구에 비해 더 많은 시대의 특징이 중첩되어 공존하고 있다. 탈냉전

으로 인해 냉전시기 수면 아래에 있던 과거 전통질서의 조직원리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로 돌아가 각 시대별 조직 원리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대 이전 전통의 역사 속에서 유교적 평화에 기반한 중국의 천하질서 원리와 함께 조선과 같은 주변국에서 이 천하질서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존재했던 청, 조선, 일본의 서구 제국주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과 이론적 논쟁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근대와 탈근대 이행기에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국제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 복합조직원리를 이해해야”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를 고려하면, 아직 이 지역이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이행이 완결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탈근대의 이행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에는 근대 이전의 전통기, 근대로의 이행기, 근대, 그리고 탈근대 이행기 등 각 시대별 특징과 조직원리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인들은 여러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고,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여러가지 목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기반한 복합적인 조직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복합적인 한국의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 차

- 1장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 2장 이론화의 기초_복합조직원리론과 주권론
- 3장 유럽 국제정치의 근대 이행
- 4장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론의 구성요소
- 5장 근대 이전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
- 6장 21세기 탈(脫)근대/탈(脫)베스트팔렌 이행과 동아시아
- 7장 동아시아의 복합조직원리와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

저자 약력

전재성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 PUBLICATIONS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